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사슴교육 적극 지원”

- 농가경영컨설팅사슴교육 실시, 장성사슴연구회 구성도 -



“연중 수차례 사슴교육을 실시, 장성군 내 양록인들이 이론을 바탕으로한 과학적 양록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박우석 소장은 지난 12월 7일 센터내 강의실에서 ‘농가경영컨설팅사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양록인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소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장성군은 사슴을 양성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 역설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브랜드 녹용 등,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소장은 장성군 양록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양록인들간의 교류와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양록인간의 모임체 구성을 건의했다.

본회 나호주 부회장 역시 “날로 치열해

가는 사회구조상 경쟁력 확보는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슴농가간의 단결과 화합이 선결요건”이라며 이날 모인 30여명의 장성군 양록인들을 기초로 지역 양록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날 모인 양록인들은 ‘장성사슴연구회’를 결성키로 합의하는 한편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 모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나부회장은 “향후 ‘장성사슴연구회’의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회 지회로의 활동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장성군 농가경영컨설팅사슴교육에는 유일준(유일동물병원장) 원장이 강사로 초빙돼 2시간 여에 걸쳐 사슴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요령에 대해 강의, 참여 양록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국양록**